

무료성경신학원(이만희)

서 론

무료성경신학원은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을 갖고 있다. 기독교신학교육원, 기독교신학원, 평신도 성경신학원, 시온기독교신학원이라는 이름은 모두 무료성경신학원의 다른 명칭이며 ‘신천지중앙교회’ (교주:이만희)라는 곳의 교육장들이다. 무료성경신학원은 현재(2002년 2월) 서울 18개, 경기도 10개, 인천 5개, 광주(전라) 10개, 부산(경남, 제주) 17개, 대전(충청) 6개, 대구(경북) 3개, 강원 5개로 총 73개의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료성경신학원에 대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교주 이만희와 무료성경신학원의 배경과 역사, 교육과정과 내용, 무료성경신학원의 이단성을 살펴보고 간략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만희는 누구인가?(장막성전-유재열-에서 파생)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 702번지에서 부친 이재문과 모친 고상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8세 때 집에서 「박군의 심령」, 「학생문장 독본」이라는 서적을 탐독한 후 어느 날인가 저녁 무렵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 당시 고향에서 풍각장로교회에 출석하였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그는 집 뒤 들판에서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기도하던 중 갑자기 별이 머리 위만큼 내려와 헬리콥터 마냥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잠들어 있는 부친을 황급히 깨워 “아버지! 별구경 하세요.” 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옛날에도 인재가 나타나면 별이 이렇게 보였다는데 우리나라에 인재가 나올려나 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날 이후 별들은 3일 동안이나 같은 현상을 보였고 이것을 자신이 경험한 신비체험이라고 말한다. 그 이후 이상하게도 집안에 큰 환란이 닥쳐와 그는 더러운 세상에서 살기 싫어 자살을 결심하고 산으로 가던 중에 환상을 체험하는데 하얀 옷차림의 건장한 사내가 나타나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나를 따르라’ 고 말해 자살을 포기하고 그 길로 하산했다고 한다. 그 뒤 또 한번의 신비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물통과 삼을 가지고 냇가로 갔는데 거센 물살을 막으려고 흠 한 삼을 뜨는 순간 거세던 물결이 일순간에 멈추고 하류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몽땅 증발하여 고기떼가 표면에 팔딱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장면을 멍하게 보고 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어디선가 40대 한 여자와 10대 미만으로 보이는 7명이 나타나 물통에 고기를 잡아서 그에게 건네주었다고 한다. 이 때 그는 너무 신비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라며 몇 시간을 울었다고 한다. 그 후 서울로 상경하여 오류동에 살았는데 당시 18세의 어린중으로 설교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났던 유재열의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장막성전과 인연이었다. 유재열의 설교를 듣고 크게 탄복하여 집에 돌아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성경을 통독하는데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진리를 쫓아가라’ 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 이후로 유재열을 열성적으로 추종하다가 1980년에 이르러 장막성전을 이탈하여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안양교회를 세우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곧 무료성경신학원의 모태가 된 것이다.

2. 무료성경신학원의 배경과 역사

이만희가 장막성전에서 이탈하여 나오게 된 계기는 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목회를 포기하면서부터이다. 유재열을 추종하여 이만희는 이에 반발하여 홍종효, 신종환 등과 함께 장막성전을 나와 1980년 경기도 안양(비산동)에 신천지안양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만희를 비롯한 몇 사람들은 유재열과 장막성전을 비방하는 편지들을 발송했다가 장막성전 교회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수감되었다가 100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는데 무료성경신학원에서는 이 기간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과 같이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게 될 것’과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의 두 증인의 ‘삼일 반 동안의 죽음’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만희와 홍종효는 신천지안양교회 초기에 ‘두 증인’, ‘모세와 아론’으로 설교와 사회, 기도를 분담하여 담당하다가 1987년 사소한 문제로다투어 결별했다. 후로 홍종효는 홍제동에 증거장막성전을 세우고 자신만이 진짜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만희는 1990년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 2동에 신학교육원(현 사당신학교육관)을 설립하고 8월 6일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 것이 무료성경신학원의 출발이다.

이후 지속적인 홍보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간 무료성경신학원은 93년경 전국에 15개 정도의 무료성경신학원을 있었고 현재(2002년)는 전국에 약 80여 개의 무료성경신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중국 등지에 25개 정도의 신학원이 세워졌고 그 가운데 15개 정도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진실(본명: 정해동), 이충직이라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며 많은 집회를 인도하는데 정진실은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81학번(88년 졸업), 고신대 대학원 중퇴로 부산에서 10여 년 전에 이만희를 만나 무료성경신학원의 교리에 빠진 뒤에 정영복이란 가명으로 신천지 교회의 부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던 여명교회, 혹은 안드레 교회를 담임하면서 99년에는 300명까지 교세를 확장하였다가 현재는 부평 무료성경신학원을 책임지고 있다.

무료성경신학원은 수많은 이름을 사용하는데 ‘시온기독교신학원’, ‘무료성경신학원’, ‘평신도성경신학원’ 등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대한예수교교역자선교협의회’, ‘세계교역자연합선교회’ 등의 이름을 내걸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정식화 된 명칭은 ‘시온기독교신학원’이다.

홈페이지도 ‘시온기독교신학원’ (<http://www.eduzion.org/kor>)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전국의 지교회와 신학원을 12지파로 분류하여 144,000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부르는 지파는 다음과 같다.

본 부 : 유다, 요한 지파	영등포 : 시므온, 시몬 지파
인 천 : 스블론, 바돌로매 지파	부 평 : 레위, 마태 지파
성 복 : 잇사갈, 야고보 지파	불 광 : 베냐민, 도마 지파
대 전 : 므낫세, 맛디아 지파	강 원 : 납달리, 빌립 지파
대 구 : 아셀, 다대오 지파	광 주 : 요셉, 베드로 지파
부 산 : 르우벤, 야고보 지파	여명(부산) : 갓, 안드레 지파

3. 교육과정

시온기독교신학원 홈페이지에는 무료성경신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말씀을 사모하는 기독교 신자, 만 18세 이상의 남.여’라고 규정한다. 또한 기독교 사역자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문의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무료성경신학원의 교육과정은 처음에는 초등2개월, 고등 2개월, 실습 1개월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로 나누어져 있다. 초등과정에는 성경개론, 비유론, 교훈서가 있고 중등과정에는 창세기, 역사서, 선지서, 사복음서, 서신서가 있다. 고등과정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다. 초등과 중등과정에서 가르쳐지는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초등과정 : ①선악구분도 ②목자의 구분(하나님께 속한 목자와 용의 목자) ③성경론 ④비유의 말씀과 짝 ⑤씨에 대한 이해 ⑥불의 비유 ⑦빛과 인 ⑧떡과 돌의 비유 ⑨그릇과 누룩 ⑩물과 샘 및 강 ⑪바다, 어부, 고기, 그물, 배 ⑫나무에 대한 이해 ⑬짐승에 대한 이해 ⑭섬과 산 ⑮논, 등대, 촛대 ⑯저울, 향로, 가마 ⑰생물, 우상, 나찰 ⑱죽음, 무덤, 생기 ⑲어린양의 피와 살 ⑳천지와 해, 달, 별

중등과정 : ①신랑, 신부, 과부, 고아, 딸 ②약속의 말씀과 빙자 비유 ③선민 예루살렘과 이방 바벨론 ④새 하늘과 새 땅, 새 이스라엘 ⑤사 1:1-2:4(약 2,700년 전 예언) ⑥단 1-2장(약 2,600년 전 예언) ⑦마 13장 : 씨, 추수, 천국(약 2,000년 전 예언) ⑧훈인잔치집의 증표와 자격(마 22:25, 계 19장) ⑨성경은 선인에 대한 말씀 ⑩시대마다 택한 대언의 목자 ⑪마 24장(약 2,000년 전 예언) ⑫창 1장(약 3,500년 전 예언) ⑬도의 초보와 완전한 곳

고등과정 : 요한계시록 전장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은 성경개론과 비유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는 고등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요한계시록 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계에 불과하다. 고등과정에서는 이만희가 직접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데 그 과정에서 이만희는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요, 보혜사요, 인치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통해 고등과정에서 이만희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무료성경신학원의 교육과정이다.

문제는 초등과정에서부터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교회의 신자들이 성경에 무지한 것을 이용해 성경의 비유들을 말 만들기과 짜 맞추기식으로 가르치면서 중등과정을 통해 점점 무료성경신학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얹어매는 것이다.

무료성경신학원이라고는 하면서 그들은 전액 장학지원혜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료는 아니고 교재대 3만원(지역에 따라 3-5만원)을 받고 있다. 교재는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며 철저한 상담을 통하여 입학이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교육시간은 오전 11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으로 하루 세 번의 동일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듣게 된다.

대전 용문동에 위치한 시온기독교신학원에 방문코자 전화 연락을 취했을 때 위치를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방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방문을 할 때는 반드시 소개한 사람과 동행하거나 소개한 사람의 이름과 관계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

강의는 월별로 개강이 있는데 전국의 개강일자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4. 교육내용

(1)성경상식1(초등1)

①성경에는 영계와 육계가 있고 하나님과 사단이 있어 각각 소속된 목자와 교단과 교리가 있다. 이 두 존재가 서로 하나님, 참 목자, 정통교단, 참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6,000년간 사람과 지상권을 차지하려고 싸워온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창 3:15)

②아담의 범죄로 사단이 지상권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참 목자를 보내 일해 오셨고(요5:17), 이 성경을 우리에게 편지로 주어 이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성경)의 내용을 바로 깨달아 믿고 그 때로 하는 자 되자.

③목자는 크게 하나님의 목자와 사단의 모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목자는 다시 약속한 목자와 예언의 목자와 일반목자가 있고 사단에게도 소속된 목자들이 있다.

(2)비유의 말씀과 죄(초등3)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 천국 비밀을 자기의 택한 목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알려주신 후 행하게 하신다.(암 3:6-7, 요3:31, 5:19, 계1:1-3)

①하나님의 비밀(고전 2:6-11, 15:51, 계1:20, 10:7)

②사단의 비밀(살후 2:7, 계2:24, 17:5-7)

그러나 천국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빙자와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셨다.

성경의 역사, 교훈, 예언 중 특히 장래사인 예언은 빙자와 비유와 비사로 감추시고는 때가 되면 밝히 일러주신다고 하셨다.(요16:25, 신29:4, 사29:9,13, 엡23:20, 단7:35, 12:4-10, 계5:1-3, 갈3:23, 계22:10)

그러므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성경말씀을 상고하는 오늘날 신앙인들이(비유로 기록된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천국 비밀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호4:6, 6:6, 마22:29, 막12:27, 요2:19-22, 엡5:17, 롬12:2)

빙자와 비유로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나고 그 때 빙자, 비유는 밝히 드러나게 되니 비유, 빙자<=>실제, 그리고 예언<=>실상이 서로의 짝이 되는 것이다.(사 34:16, 요1:14)

①비유 / 사28:16(돌)=>벧전2:4, 마21:42(예수님)

②빙자 / 사61:1~(이사야)=>마3:16, 눅4:17(예수님)

③예언 / 사46:10, 요14:29=>요19:28, 30, 계21:6

(3)물 샘, 강(초등교재9)

①물(신32:1-2, 사5:6, 렘2:13, 암8:11, 고전3:6-9, 요3:5, 요일5:7, 창1:6)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깨끗하지 못하고 먹지 못할 물도 있으니 이는 사단의 비진리이다.

②하나님의 샘, 강

샘(계21:6, 사12:3, 스4:13, 아4:15, 잠10:11 등) =>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가 솟아나는 성전과 그 목자와 그 입을 샘으로 비유한 것이다.

강(겔47:1-12, 요7:38, 계8:10-11, 22:1) => 말씀을 가진 예수님을 물의 근원 곧 샘이요, 가지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생수가 흐르는 길이니 곧 강이요, 이 생명수 샘물은 강들인 제자들을 통해 밭 곧 세상으로 흘러 나가게 된다.

③사단의 샘, 물, 강(계12:15, 16:4, 렘51:36, 약3:10-12 등) => 사단의 목자도 비진리가 솟

는 샘이요, 그들의 제자가 강이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도 물이 되는 것이다.

(4) 짐승에 대한 이해(초등11)

성경에는 구원의 짐승(하나님께 속한 짐승, 계4:7, 마3:16, 25:31-34, 고전9:9 등)과 멸망의 짐승(사단에 속한 짐승, 창3:1, 49:17, 단4:15-20, 마23:33 등)과 배도한 짐승(하나님께게서 사단으로 간 짐승, 사5:9-12, 마22:4, 뱀후2:20-22 등)이 있다. 구원의 짐승으로는 양, 말이 있고 멸망의 짐승으로는 이리, 사자, 표범, 들개, 곰, 뱀, 들소, 쥐, 황충, 벌레, 용이 있고 배도의 짐승으로는 개, 돼지, 잃어버린 양이 있다. 여기서 구원의 짐승이란 무료성경신학원에서 비유풀이를 배우는 자들이고 멸망의 짐승은 기존교회의 썩물을 먹는 성도들과 지도자를 뜻하며, 배도한 짐승은 무료성경신학원에서 비유풀이를 배우거나 배우다가 떠난 사람들을 지칭한다.

(5) 신랑, 신부, 과부, 고아 딸(중등1)

하나님의 신랑 신부(사54:5, 호2:19, 마22:2, 계22:17 고후11:2, 갈4:19 등)와 과부와 고아, 시온의 딸(사1:8, 17, 시9:17, 스9:9 시109:8-10, 47:9 등)과 사탄의 신랑 신부(사57:3-4, 마13:38, 요8:44 등)로 구분한다.

세상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녀를 낳아 기르고,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고아라 하듯 이러한 이치를 빗자하여 비유를 베풀었으니 말씀(씨)을 주는 영을 신랑, 남편이라 하고 말씀(씨)을 받아 전하는 목자를 신부, 아내라 하며, 목자(여자)로부터 말씀의 씨로 낳은 백성들을 자녀라 하고, 배도(간음)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성령이 떠난 목자는 과부요, 그 백성들은 고아 또는 시온의 딸들이라 일컫는 것이다.

5. 왜 이단인가?

이단의 요소가 있는 것은 무료성경신학원의 교육내용에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만희를 신격화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이만희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보혜사 성령, 인 치는 천사, 재림주, 그리스도, 이 시대의 구원자 등으로 신격화시키고 있다.

(1) 이만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주장(계1:8)

이만희는 자신이 쓴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에서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한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을 말한다. 시작은 씨요, 끝은 열매이다. 시작은 예언이요, 끝은 실상이다. 성경 속에 감추인 모든 비밀이 실상이 나타남으로 열매로 결실하여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아시아 한반도 한 국 땅에 세례 요한의 사명자가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도 그 곳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말해준다.” (pp.36-37)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말은 교주 이만희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것이 이만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것이 이만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곧 알파와 오메가라는 주장이다.

(2) 이만희를 인 치는 천사라고 주장(계7:1-3)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 치는 천사가 바로 이만희라는 주장이다. 이 천사에게 인을 맞

은 사람의 수가 144,000명인데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이 144,000명이 된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1-3에 나오는 땅은 각 교단이고 나무는 각 교단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라고 해석한다. 즉, 각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 이만희의 교리를 듣고 나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이 있다.

“보혜사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은 동일한 것으로 사실상 끝날에 나타나 역사하게 될 두 증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 끝날에 사도 요한이나 보혜사나 증인이 각기 따로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세 사람으로 보이는 이 사명자들은 각기 다른 인물이 아니고, 동일한 사명을 받은 동일한 인물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 권세를 받아 구원과 심판, 예언과 증거, 모든 일을 맡아서 수행할 지상의 육체적인 사명자가 나타난다. 바로 이 인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사도 요한이요, 보혜사요, 또 두 증이다.” (p.177)

즉, 교주 이만희가 사도 요한이며 보혜사로 끝날에 나타난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4)유재열은 세례 요한, 이만희는 예수로 비유

이만희는 장막성전(유재열)에서 파생된 이단이다. 이만희가 자신이 보혜사이고, 인 치는 천사이고,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자라는 것은 이미 장막성전에서 유재열이 자신에게 적용했던 이단요소들이었다. 그런데 장막성전이 막을 내리자 자신이 바로 보혜사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유재열이 보혜사 성령인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인가? 이 관계를 풀기 위해 이만희는 ‘세례 요한의 교리’라는 것을 주장한다. 즉,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세례 요한이 왔다고 기록한 것을 이용해서 장막성전의 유재열은 이만희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5)이만희를 만국을 다스릴 자(계12:1-6)로 주장

요한계시록 12:1-6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을 이단들은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문선명, 안상홍 등 이단교주들은 모두 자기가 만국을 다스릴 자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만희도 다르지 않다. 이만희는 해를 입은 여인이 자신을 가르친 유재열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만국을 다스릴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6)이만희를 어린 양이라고 주장(계5:4-7)

무료성경신학원에서 사용하는 「신탄」(도서출판 신천지)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이 모든 증거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 주셨다. 언약한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도와 멸망의 소용돌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새 생명의 나라를 개국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 분이 바로 이만희 선생이시다. 역사 이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모진 수난의 길을 홀로 걸어 오시면서 피살을 말리고 뼈를 깎는 통한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과 상봉하시게 되었다. 성령은 친히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양육하시며 풀무 불 가시발길의 연간을 시키신다. 그는 이 시대에 나타난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용과 싸워서 이기시고 묵시의 일곱 인을 떼시기에 이른 것이다.” (pp.43-44)

여기서 이만희를 일곱 인을 떼는 자로 주장하는데 성경에서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다. 즉, 이만희가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만희를 재림주와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부분도 살펴보면 이만희의 신격화를 쉽게 알 수 있다.

“예수와 계시록의 어린 양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초림과 재림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예수는 요한에게 주신 계세에서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7)고 하셨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노라(요14:6)고도 말씀하셨다. 예수의 새 이름은 이간 자로 나타나실 보혜사인 어린 양 자신만이 아실 것이다. 이것은 에덴의 생명나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유대나라에 찾아온 사실을 예수 밖에는 아는 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날에 오실 생명나무를 찾아 그 앞에 모이자.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도 생명나무로 화해하 한다.(「신탄」.pp.99-100)

이만희는 보혜사이며, 어린 양이며, 이 시대의 생명나무라고 한다.

결론 / 대처 방안

무료성경신학원에 포섭되는 대상은 기존 교회의 신자들이다. 그들은 교인들만 끌어들인다. 그렇다면 기존 교회에 뭔가 큰 허점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보고자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신앙이 투철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청년이 ‘시온기독교신학원’에 빠져들었다. 많은 생각을 했다. 무엇일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은 기존 교회 안에 설교와 기도와 찬양은 풍성할지 몰라도 성경을 바르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교육도 큰 허점으로 남는다. 모이기를 힘쓰고 숫적인 부흥을 원하고 교세의 확장을 원하는 기존의 교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런 허무맹랑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교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이런 이단들은 기존 교회의 바로 옆에 있다. 교인들이 그 곳으로 발길을 향할 때 이단의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공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옹호하는 식으로 그 곳에 가면 권징을 하고 출교를 시키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대처 방안은 교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이단들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